

박람회 성공 위해 나주·담양 손잡았다

9월 담양 세계대나무·10월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두 행사장간 셔틀버스 운영·입장권 할인 등 공동 마케팅

나주와 담양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두 개의 국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양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동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입장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재)전남도 국제 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6일 “2015 국제 농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담양세

계대나무박람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 국제 농업박람회와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는 올해 10월과 9월 나주와 담양에서 각각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두 박람회를 모두 관람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두 조직위간 협력 분야는 셔틀버스 운

영, 공동 홍보, 입장권 할인 등이다.

세부 사업별로 각 박람회장을 40여 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직통 셔틀버스를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1시간 간격으로 운영한다. 또 두 박람회 누리집 배너 연결, 신문광고 홍보전단(리플릿) 등 지면을 이용한 홍보시 상대 박람회 지면 할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상대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 대한 할인 적용도 이뤄진다. 국제 농업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는 담양 대나무박람회장 연계 관광지인 대나무박물관, 소재원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두 조직위는 앞으로 협력 분야 세부 추

진과정에서 관람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협조기로 함에 따라 두 박람회간 경계가 아닌 시너지 발생으로 국내외 관람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5 국제 농업박람회는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남도 농업기술원 일원(나주시 산포면)에서 열리며,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는 ‘대숲에서 찾은 녹색미레’라는 주제로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죽녹원 일원(담양읍)에서 개최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무안경찰, 장성서 청렴교육·문화탐방

청백리 박수량 묘소 참배

무안경찰이 청렴도 향상과 의무위반행위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안경찰서(서장 박영덕) 직원들로 구성된 ‘왕도랑회’는 최근 조선시대 최고의 청백리로 꼽히는 아곡 박수량(1491~1554년) 선생의 고향인 장성을 방문해 청렴교

육과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사진) 직원들은 먼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에서 명사초청 청렴교육을 받은 후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에 위치한 박수량 선생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남약=임동현기자 idh@

전남농업박물관 현장체험 학습자료 제작

학년·전시관별 세분화

온라인 게시...누구나 이용 가능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은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박물관 전시 내용과 교과 과정이 연계된 ‘현장체험 학습자료’를 제작, 농업박물관 누리집에 올려 활용하도록 했다.

현장체험 학습자료는 초등 저학년용(1~3학년)과 고학년용(4~6학년),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돼 있으며, 농경문화관, 남도생활민속관, 쌀 문화관 등 전시관별로 학습 목표, 학습 문제, 토의 주제 등으로 세분화해 체험학습 효과를 높일도록 꾸며졌다.

초등 1~3학년은 과거와 오늘날의 의식주, 생활도구, 민간신앙 및 쌀의 이용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했으며, 4~6학년은 과

거와 오늘날의 농경 문화의 변화, 기후환경 문제와 논의 이용 가치 등 농업의 발전 과정을 중점으로 학습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중·고등학생은 조선 후기 이앙(모내기)법의 발달 과정, 개방화 시대 우리 농업의 방향성 등 과거와 현재의 농업 여건은 물론 우리 농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체험 학습자료는 농업박물관 누리집(새소식란)에 게시,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우성 관장은 “다양한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북 소식

사발통문 등 동학유물 3점 문화재 지정 신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소장된 ‘사발통문’(沙鉢通文)과 ‘흥선대원군 효유문’(曉諭文), ‘양호전기’(兩湖電記) 등 3점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전북도에 신청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물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사발통문’은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해인 1893년 11월 전봉준을 비롯한 22명의 동학 간부들이 모여 농민군의 최종 목표를 적은 문서로, 주모자를 알 수 없도록 사발처럼 둥근 형태로 서명한 것이다.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이 계획적인 혁명운동이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며, 현재 남아있는 동학 유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흥선대원군 효유문’은 흥선대원군이



사발통문

동학농민군에게 해산할 것을 종용한 문서이며, ‘양호전기’는 동학농민군의 토벌군 책임자인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1894년 4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조선 정부의 각 기관과 주고받은 전보를 날짜순서로 수록해 놓은 기록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이들 유물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등록되면 이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군산시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선정

농촌마을 주민에 미용 등 봉사

군산시가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2015년도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6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성산면의 저소득층과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모두가 행복한 농촌사랑나눔 사업’을 신청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농촌마을 주민에게 손발 마사지와 이·미용, 장수사진·메이크업,

마술·웃음치료, 민요·노래교실 등의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마을에 생생한 활력을 불어 넣음은 물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나눔 활동으로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다채로운 재능을 지닌 봉사단체를 추가 발굴하는 등 재능기부 분위기를 확산시켜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주꾸미 생산 증대 총력...30만마리 방류

무안해역에 6~7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연안 갯벌의 정착성 고소득 품종인 주꾸미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자원 증강 및 수입대체 효과 등을 위해 올해 30만 마리의 어린 주꾸미를 방류하기로 했다. 방류 시기는 6~7월로 정해졌다.

25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주꾸미 생산량은 394t으로 전국(2530t)의 15%를 차지했다. 지난

2009년 전남 생산량(548t)에 비하면 28%가 줄어든 것이다. 갯벌 매립과 남획 등이 주요 원인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매년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 태국, 중국 등이며 지난해 3만1889t(1억4631만2000달러)에 달했다.

주꾸미는 지역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이지만 매년 생산량이 줄고 있으며, 특히 봄철 들어 소비가 늘면서 kg당 4만원을 호가하는 등 국내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중

이다. 이에 따라 국제 갯벌연구소에서는 지난 2013년 주꾸미 인공 종묘생산 실험 연구를 시작해 7만 마리의 종묘를 생산, 신안 해역에 방류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종묘를 생산해 30만 마리의 어린 주꾸미를 무안 해역에 방류하는 등 연안 갯벌의 생산성 향상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해오고 있다.

올해도 5월경 성숙한 주꾸미를 확보해 약 50일간 안정적인 사육을 통해 30만 마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 무안군과 공동으로 탄도면, 청계면 지역 2개소에 해상가두리 부화장을 설치해 생존율 증가와 방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험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 주꾸미는 부화하면서 바로 유영을 하고 먹물을 분산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서로 잡아먹는 공식(共食)현상이 심하고, 이로 인한 폐사율이 높아 부화 후 3일 이내 해상에 방류를 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품종이다. /윤현석기자chadol@

고창군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장에 문규환씨

문규환 전 농업기술센터장

문규환(62·사진) 전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재)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 연구소장에 선임됐다.

고창군이 출연한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구 고창북부자연연구소)는 최근 정기 이사회에서 문 전 소장을 제3대 연구소장으로 공개채용했다.

문 신임 연구소장은 지난 1978년 8월 고창군 농촌지도사를 시작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2012년 7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지방농촌지도관)으로

퇴직하기까지 34년간 지역 농업발전에 헌신했다.

박우정 이사장(고창군수)은 “연구소장 공개채용에 따라 지역농가(생산자),

식품관련업체, 유관기관 관계자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토대로 연구소 경영혁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부자 등 지역특화작물의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양호 14억
- 모뎀 화순군 도곡면 대지 1671㎡(505) 건평 1010㎡(305) 4억 5천
- 사할, 기도원, 요양시설 적합 보성군 문곡면 땅 2092㎡(633) 건평 874㎡(264) 은행 1억5천 매도 1억 7천
- 레스토랑, 커피숍, 산수오거리에서 20분, 광주호에서 5분거리 영업질 대지1054㎡(319), 건물473㎡(143), 은행 2억3천 교환도가는 5억47천
- 유동 로타리 인근 4차선 도로 상업지 대지 335㎡(101) 건평 601㎡(185) 공시지가 3억9천 은행 2억2천 매도 4억
- 금남로 4가 병원·사육 등 적합 5층건물 대지1648㎡(196), 건물3410㎡(1032), 김정 23억 7800만원 매도 21억47천
- 서구 지평동 유흥업 중심건물 대지 746㎡(226)건물 4617㎡(1397) 은행 30억 보증금 4억6천 월 4600 수취액 매도 63억
- 영암군 월출산 관광지시설지구 대지 1026㎡(310) 건물 2085㎡(630) 3억 3천에 매입했던 물건임, 은행 1억6천 매도 2억44천
- 관산구 송정동 상모지구 1117㎡(338) 전세92천 월 210 건물신축에 적합 12억
- 물류청고·공정 적합 관산구 상가동 33000㎡(10000) 26억
- 동명동 조산대 부근 시설 좋은 고가텔 대지236㎡(71) 건물732㎡(2221) 60실 공용음용 은행 3억 4천 월 1200만원 수입 안정적인 노후생활주택 8억 3천
- 동구 금동 상업지역 2층 주택 대지192㎡(58) 건평 193㎡ 임대 3600에 50 교환 가능 2억8천
- 충장로 4가 광주극장 앞 금양 오피스텔 76㎡(23) 매도 3500만원
- 관산구 유남동 4월 준공예정일 다세대 아파트형 74㎡(24형) 분양가 1억 8750만원
- 141㎡(43형) 분양가 3억 4400만원 건물 신축할 땅과 교환도 가능함

문의 222-4994, 010-2632-565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층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방 양호, 매3억8천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층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입아 2,187㎡, 주택 96㎡, 공장 75㎡, 점포 26㎡, 매2억4천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7,930㎡ 신축주택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변, 매12억
- ▶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전 배 과수원 6,089㎡ 생산관리 지역 투자유망 매 7억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담9,341㎡ 혁신도시이단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7,547㎡ 2차선도로변 매3억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전 2,820㎡ 2차선도로변 광주시 대충동경계 매1억7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원
-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3,871㎡ 주택, 창고적합, 도로양호 매9천5백만
- ▶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담7,610㎡ 2차선 국도변 도로변, 투자유망매1억5천만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입아9,384,140㎡ (대지,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산산 적합 매30억원
- ▶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 과수원24,884㎡ 매4억9천만
- ▶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입아 91,446㎡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전(일부대지) 배 과수원4,914㎡ 4차선 국도변, 자연녹지, 판매장 적합 투자 유망 매2억5천만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51
이준상 ☎ 010 9510 1150

법원경매

광산구 소촌동 2중주거지역 15m도로점 대지400㎡ 건물1~2층 295㎡ 카센터 세차장이용중 2층안정 김정가 3억7천9백 최저가 3억3백만원

동구 용연동 1중지구단위 계획구역, 4m도로점 담 2,456㎡ 수목식재됨 김정가 5억9천5백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건축가능)

담양군 금성면 근린시설대지 30,308㎡ 2층건물 2,916㎡ 현재 민속박물관(요양병원, 수련원,전원주택개발가능) 김정가 28억 최저가 10억

보성군 율포해수욕장인근 상가 토지556㎡ 건물1~2층 500㎡ 펜션 및 음식점, 상가추천, 도로점 김정가 4억1천2백 최저가 1억4천8백만원

부동산재테크 전문
다와옥션 김용희부장
010-6838-6008

(주)전국부동산 경매연구소

회사성립 : 2003년 8월 26일
등록번호 : 200111-018150
사업자번호 : 650-81-00051

초저금리(예금/대출) 시대에 재테크의 지름길은 "부동산 경매"입니다.

- 부동산 경매를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안정된 재산 증식을 원하시는 분
- 경매를 배우실분(무료) (정년·명예 퇴직 하신분 환영)
- 부동산 관련 고충, 행정처리 (무료상담)

취급물건
투자가지있는 전국부동산경매물건

사업의 중목

- 부동산 중개업(매매/임대)
-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알선업
- 경·공매 부동산 명도 용역업
- 경락잔금 알선업

보유 자격증
•공인중개사, 경매사, 행정사
방문 및 상담
062-449-2552
010-3441-1308 (주/야)
062-449-2552@daum.net
수익금 일부는 생령사랑운동본부에 후원합니다.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축하화환3단
결혼, 고회,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